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55 (주님을 따르려 모여 있는)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174 (사랑의 신비)	441 (주의 나라 임하면)

제 1독서 | 아모스 7,12-15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좌)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우)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좌)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제 2독서 | 에페소서 1,3-10

<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6,7-13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는 연중 제 15주일입니다. 제 1독서에서는 아모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제 2독서에서 드러나지요.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Today's Gospel, <Mark 6:7-13>

Jesus made a tour round the villages, teaching. Then he summoned the Twelve and began to send them out in pairs giving them authority over the unclean spirits. And he instructed them to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 - no bread, no haversack, no coppers for their purses. They were to wear sandals but, he added, 'Do not take a spare tunic.' And he said to them, 'If you enter 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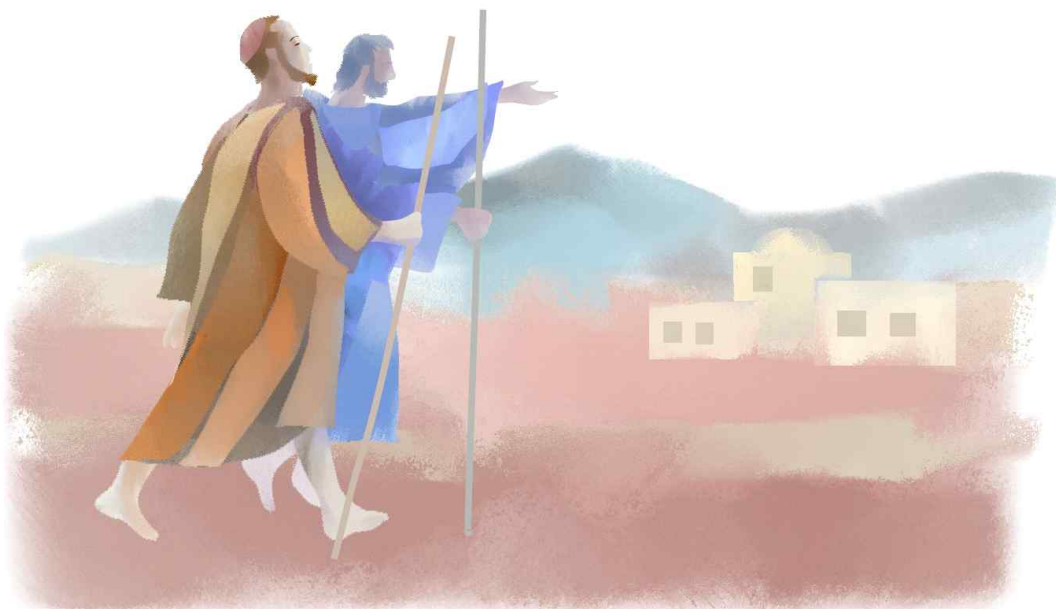
anywhere,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e district. And if any place does not welcome you and people refuse to listen to you, as you walk away shake off the dust from under your feet as a sign to them.' So they set off to preach repentance; and they cast out many devils, and anointed many sick people with oil and cured them.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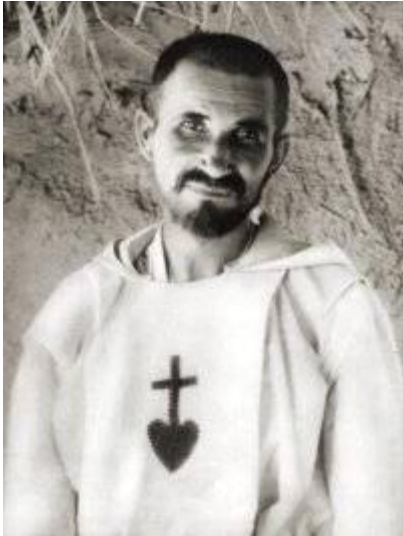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Indeed the Twelve have the order to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 - no bread, no haversack, no coppers for their purses.” (Mk 6,8). Jesus wants them to be free and unhampered, without reserves and without favours, certain only of the love of the One who sends them, strengthened only by his Word which they go to proclaim. - Pope Francis

성 샤를 드 푸코(1858~1916) - 부르심 이야기



샤를 드 푸코는 1858년 9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6살일 무렵,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했고, 아버지도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친척들의 돌봄을 받으며, 유년시절을 보냅니다.

푸코가 소년시절을 보낸 곳은 예수회에서 운영한 기숙학교였는데, 이곳은 학교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푸코는 이 엄격한 규율을 싫어했습니다.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한 그는 성적도 좋지 못했고, 항상 쓸모없는 아이로 취급받았습니다. 결국 푸코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푸코는 그때를 회상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세에는 오직 자신 밖에 몰랐으며, 하느님을 몰라보았고, 악행을 원했다.”

퇴학을 당하고 난 후, 그는 사관학교에 들어가 프랑스 군대의 장교로 임관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던 푸코는 방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푸코는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군림하기를 좋아했으며, 식사 때마다 샴페인을 즐겨 마시며, 창밖으로 돈을 뿌리는 등 무절제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참된 사랑과 배려란 없었습니다. 그의 상관이 푸코를 ‘군인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하였을 때에도, 보란 듯이 방탕한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내적 공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허감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1882년에서 1884년 사이 그는 모로코로 여행

을 떠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만난 무슬림들의 깊은 신앙을 보면서 하느님에 대하여, 거룩한 삶에 대하여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푸코는 그때 자신이 받은 인상에 대하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심은 내 안에 깊은 동요를 불러왔다. 신앙, 끊임없는 하느님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며 나는 속세의 일보다 더욱 위대하고 진정한 무언가를 엿보게 되었다”

사막의 무슬림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깊은 인상을 받은 푸코는 하느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때부터 푸코는 “하느님, 만약 당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청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신앙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선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1886년 10월, 그는 신앙에 대한 의구심과 하느님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었고, 한 성당에 들어가 그곳 신부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에 관한 앎을 원하던 푸코에게 보좌신부였던 위블랭 신부님은 다른 어떠한 무엇이 아닌, “우선 무릎을 꿇으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고해를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푸코는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거부했지만,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께 형제님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푸코는 자유롭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푸코는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숨김없이 모두 고해했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는 크나큰 자유로움과 하느님을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제는 그에게 “아직 아침 식사 안하셨지요?” 하고 물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고는 즉시 성체를 영해 주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푸코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처음 느끼게 됩니다. 원망과 불확실성에 주저하면서 헤매고 있던 그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환희는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압도했으며, 하느님께로 걸어가야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아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공지 사항

1. Movie Day for Kids

- 신청 인원: 총 20명
- 일시: 7월 20일(토). 9:00am ~ 12:30PM
- 장소: Belconnen Westfield 내 Hoyts
점심식사는 Aranda 성당 교육관
- 세부 일정:
09:10 ~ 09:20 - Belconnen Hoyts 입구 티켓수령
09:30 ~ 11:10 - 영화 관람
11:10 ~ 11:30 - Aranda 성당 교육관 이동
11:30 ~ 12:30 - 점심식사 및 뒷정리

2. '제 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엽서 보내기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을 위한 엽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전 입구에 마련된 엽서 혹은 각자가 준비하신 편지에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출해주시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작성하신 엽서를 **7월 28일(주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캔버라 한인성당 교적 정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 안내

양업 전산시스템에 신자분들의 교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교적의 전산 등록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구 테이블 위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자분들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캔버라 한인성당에서는 해당 신자분의 교적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6월 30일	유아·청소년: 23명	성인: 49명
7월 7일	유아·청소년: 21명	성인: 55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7월 14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7월 21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7월 14일)	마르코반
다음주 (7월 21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7월 6일 ~ 7월 12일)

봉 헌 금	\$306				
교 무 금	\$600				
권묘순	김요한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상명	장일한	장호훈	
전인철	정수민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